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(2013년 3/4분기)

2013. 11. 14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

해 외 투 자 분 석 팀

목 차

요 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Ⅴ. 기 타	10

< 요약 >

- 2013. 3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6.4% 감소, 전분기 대비 7.7% 감소한 54.4억 달러 시현

【 지역별 】

- 주요 지역 중 아시아와 대양주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, 유럽과 북미는 감소
 - 대양주 160.6% 대폭 증가 및 아시아는 7.3% 증가를 보인 반면, 유럽과 북미는 각각 49.7%, 48.6% 감소
 - ※ 아시아(23.7억 달러), 대양주(10.2억 달러), 유럽(7.1억 달러), 북미(5.7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- 주요 업종인 제조업의 증가를 비롯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금융 및 보험업이 대폭 증가를 보인 반면, 광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감소세
 - 제조업은 17.1% 증가한 반면 광업 투자는 5.4% 감소하였으며, 비중은 각각 39.4%, 24.9%임
 -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(7.4억 달러)가 전년동기 대비 22.0% 감소
 - ※ 제조업(25.1억 달러), 광업(13.5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8.3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3.3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3억 달러)

【투자기업규모별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2.1% 감소로 그 비중이 전년동기 85.0%에서 70.8%로 축소

【투자규모별/지분율별】

□ 1억 달러 초과の大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감소

- 금분기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29.1%를 차지하여 전년의 41.1% 대비 대폭 감소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0.8%에서 금분기 72.5%로 소폭 증가

I. 개 요

- 2013. 3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58.1억 달러 대비 6.4% 감소, 전분기 58.9억 달러 대비 7.7% 감소한 54.4억 달러 기록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667개에서 1.5% 증가, 전분기의 694개에서 2.4% 감소한 677개를 시현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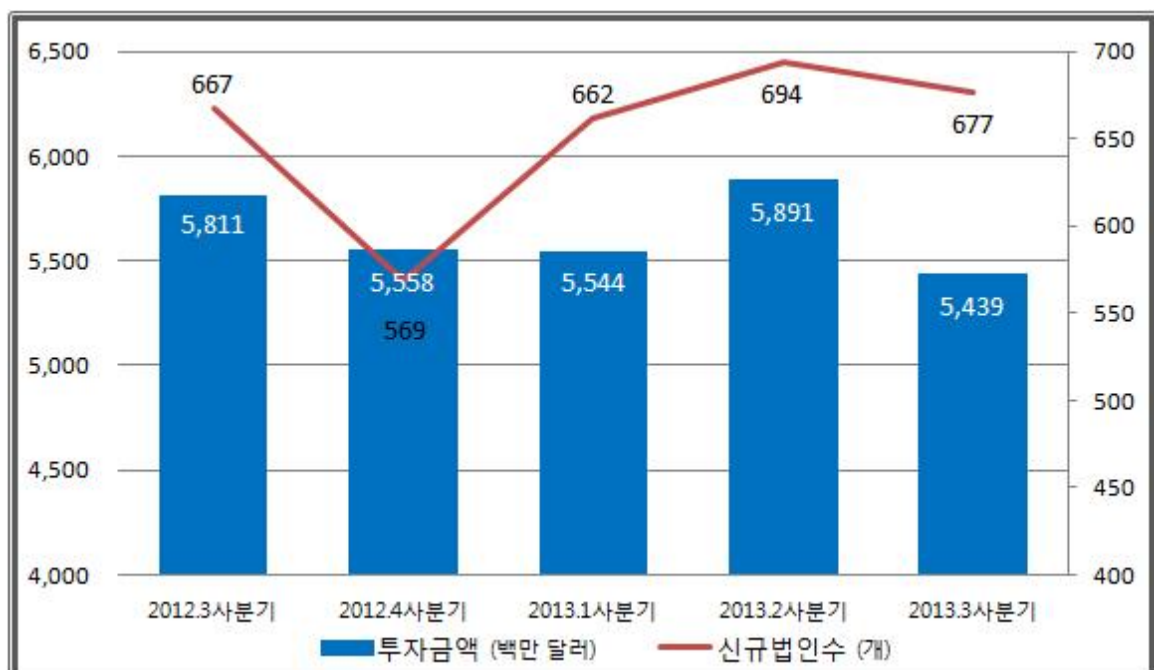
구 분	2011		2012		2012. 3/4		2013. 2/4		2013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	26,491	2,759	23,163	2,471	5,811	667	5,891	694	5,439	677
(증가율)	8.7%	-4.4%	-12.6%	-10.4%	-16.8%	-3.2%	4.0%	8.3%	-6.4%	1.5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투자는 2010. 2/4분기의 40.1억 달러 이래 최저치를 기록
 -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(43.5%), 대양주(18.7%), 유럽(13.1%), 북미(10.6%) 순으로 아시아는 2011. 2/4분기 이래로 최대투자 지역이며, 업종별로는 제조업(39.4%), 광업(24.9%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5.3%), 금융 및 보험업(6.1%)의 순으로 1/4분기 이래로 제조업이 지속 1위 차지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
중국(10.4), 호주(6.8), 미국(4.6), 베트남(3.6), 마셜군도(3.2)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
A사 (5.9), B사 (4.7), C사 (2.9), D사 (2.1), E사 (1.9)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
A사 중국 현지법인 (5.8)

D사 저지 현지법인 (2.1)

C사 호주 현지법인 (1.9)

B사 호주 현지법인 (1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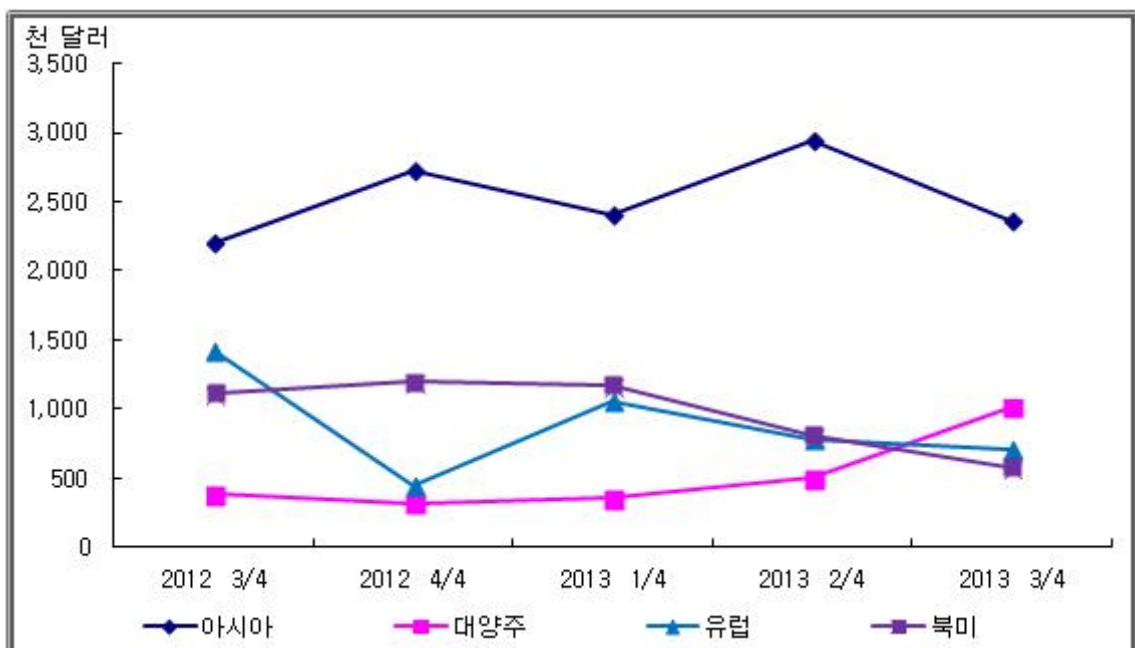
F사 호주 현지법인 (1.8)

II. 지역별 동향

-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 전년동기 대비 7.3% 증가한 가운데, 대양주 지역이 160.6% 큰 폭 증가하여 분기중 2위 지역에 오름.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3.5%, 대양주 18.7%, 유럽 13.1% 순이며,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75.3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상위 3개 지역인 아시아, 유럽, 북미가 각각 38.0%, 24.3%, 19.2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1.5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10.4억 달러), 베트남(3.6억 달러), 유럽은 저지(2.1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4.6억 달러), 중남미는 케이만군도(1.7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16.3억 달러)과 광업(3.2억 달러), 유럽은 제조업(2.5억 달러)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(2.1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1.5억 달러)과 제조업(1.1억 달러), 중남미는 광업(1.8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3/4		2013. 2/4		2013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1,087	1,858	10,116	1,677	2,207	473	2,943	466	2,368	466
(비중)	41.9%	67.3%	43.7%	67.9%	38.0%	70.9%	50.0%	67.1%	43.5%	68.8%
(증가율)	10.2%	-3.8%	-8.8%	-9.7%	-31.9%	-1.9%	48.1%	11.2%	7.3%	-1.5%
대양주	1,519	76	2,279	53	390	19	498	28	1,015	19
(비중)	5.7%	2.8%	9.8%	2.1%	6.7%	2.8%	8.5%	4.0%	18.7%	2.8%
(증가율)	95.1%	5.6%	50.1%	-30.3%	46.8%	-13.6%	-43.0%	55.6%	160.6%	0.0%
유럽	3,655	155	3,070	122	1,412	25	781	42	711	35
(비중)	13.8%	5.6%	13.3%	4.9%	24.3%	3.7%	13.3%	6.1%	13.1%	5.2%
(증가율)	-40.3%	0.0%	-16.0%	-21.3%	184.8%	-28.6%	23.1%	40.0%	-49.7%	40.0%
북미	7,266	467	4,449	470	1,118	127	812	121	574	120
(비중)	27.4%	16.9%	19.2%	19.0%	19.2%	19.0%	13.8%	17.4%	10.6%	17.7%
(증가율)	57.2%	-15.1%	-38.8%	0.6%	-42.2%	28.3%	-45.1%	-4.7%	-48.6%	-5.5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1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.3% 증가한 23.7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.5% 감소한 466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10.4억 달러, 비중 43.8%), 베트남(3.6억 달러), 말레이시아(1.8억 달러), 미얀마(1.5억 달러), 홍콩(1.3억 달러) 순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10년 36.1%, '11년 33.2%, '12년 32.7%, '13년 1/4분기 38.7%, '13년 2/4분기 50.8%

- 업종별로 제조업(16.3억 달러, 비중 68.9%), 광업(3.2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1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(각각 0.7억 달러) 순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53.3%, '11년 52.6%, '12년 48.4%, '13년 1/4분기 56.5%, '13년 2/4분기 70.0%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5.8억 달러
 - G사의 미얀마 광업 투자 : 1.3억 달러
 - H사의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 : 1.0억 달러

2. 대양주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60.6% 증가한 10.2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증감 없는 19개 기록
- 국가별로는 호주(6.8억 달러, 비중 67.1%), 마셜군도(3.2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(4.8억 달러, 비중 47.3%), 광업(4.6억 달러, 비중 45.2%) 순
- 대양주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비중 : '10년 1.6%, '11년 5.7%, '12년 0.1%, '13년 1/4분기 5.2%, '13년 2/4분기 16.2%
- 대양주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51.7%, '11년 83.2%, '12년 91.3%, '13년 1/4분기 79.9%, '13년 2/4분기 78.2%
- 주요 투자 사업
 - C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1.9억 달러
 - B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1.9억 달러
 - F사의 호주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1.8억 달러

3. 유럽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9.7% 감소한 7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40.0% 증가한 35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저지(2.1억 달러, 비중 29.6%), 네덜란드(1.7억 달러, 비중 24.6%), 체코(0.7억 달러), 덴마크, 독일과 스위스(각각 0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제조업(2.5억 달러, 비중 35.4%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2.1억 달러, 비중 29.6%), 광업(1.3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0.5억 달러) 순

- 유럽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13.3%, '11년 16.7%, '12년 25.9%, '13년 1/4분기 26.5%, '13년 2/4분기 14.1%
- 유럽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비중 : '10년 17.6%, '11년 0.8%, '12년 0.1%, '13년 1/4분기 0.0%, '13년 2/4분기 0.0%

- 주요 투자 사업

- D사의 저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2.1억 달러
- I사의 네덜란드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 : 0.5억 달러
- B사의 네덜란드 광업 투자 : 0.5억 달러

4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8.6% 감소한 5.7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5.5% 감소한 120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4.6억 달러, 비중 80.2%), 캐나다(1.1억 달러) 순
- 업종별로는 광업(1.5억 달러, 비중 26.2%), 제조업과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각각 1.1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과 도매 및 소매업(각각 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28.2%, '11년 43.9%, '12년 54.7%, '13. 1/4분기 32.2%, '13. 2/4분기 16.0%
- 북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7.9%, '11년 7.5%, '12년 16.7%, '13년 1/4분기 9.6%, '13년 2/4분기 17.5%

- 주요 투자 사업

- J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0.4억 달러
- E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0.4억 달러
- K사의 미국 제조업 투자 : 0.4억 달러

5. 기타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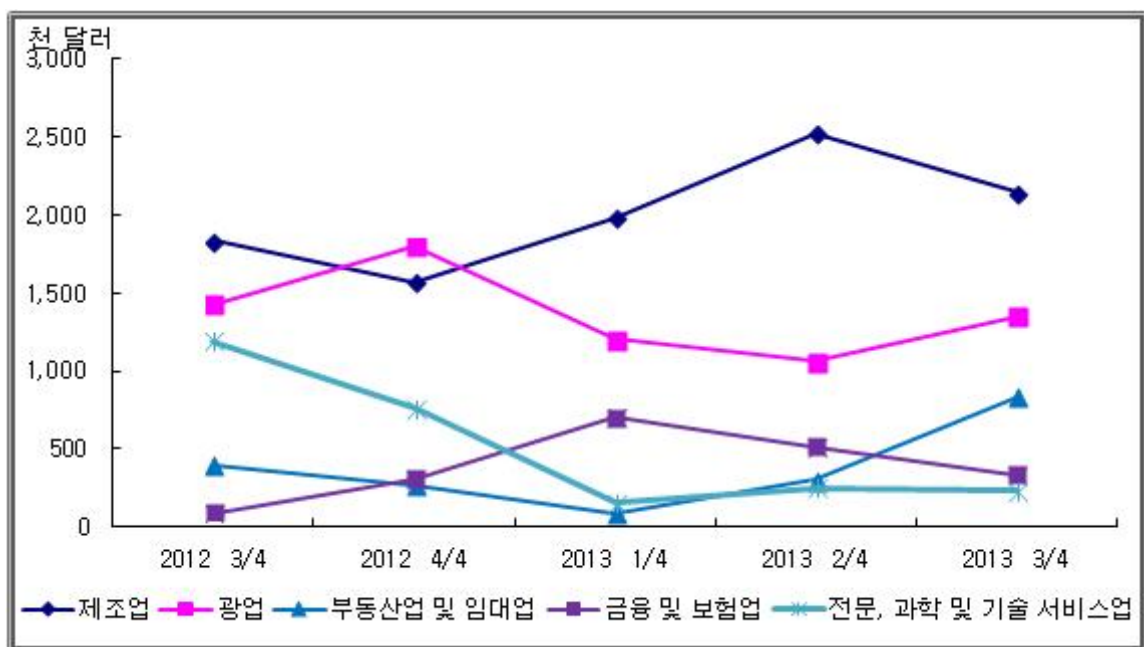
- 전년동기 대비 중동과 중남미 각각 141.7%와 3.4% 증가한 반면, 아프리카는 -44.6%의 감소 시현
- 주요 투자 사업
 - E사의 멕시코 광업 투자 : 1.1억 달러
 - B사 이라크 광업 투자 : 0.8억 달러
 - L사 케이만군도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0.6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- 전년동기 대비 금융 및 보험업 261.8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0.2%, 건설업 69.1%, 제조업 17.1% 증가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-80.6%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-68.8%, 도매 및 소매업 -48.0%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-42.0% 등은 감소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인 39.4%, 광업 24.9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.3%, 금융 및 보험업 6.1%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.3% 순
 - 제조업은 중국(9.7억 달러), 베트남(2.3억 달러), 브라질, 말레이시아와 미국 (각각 1.1억 달러) 순, 광업은 호주(4.5억 달러), 미얀마(1.4억 달러), 네덜란드와 멕시코(각각 1.1억 달러), 캐나다(0.9억 달러) 순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8.9%, '11년 31.0%, '12년 32.1%, '13년 1/4분기 35.8%, '13년 2/4분기 42.8%
 -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30.0%, '11년 28.6%, '12년 30.2%, '13년 1/4분기 21.7%, '13년 2/4분기 18.0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3/4		2013. 2/4		2013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제조업	8,217	1,067	7,427	873	1,832	244	2,522	264	2,145	268
(비중)	31.0%	38.7%	32.1%	35.3%	31.5%	36.6%	42.8%	38.0%	39.4%	39.6%
(증가율)	16.9%	-4.8%	-9.6%	-18.2%	-38.1%	-9.3%	85.0%	20.0%	17.1%	9.8%
광업	7,579	48	6,991	40	1,431	6	1,062	5	1,354	4
(비중)	28.6%	1.7%	30.2%	1.6%	24.6%	0.9%	18.0%	0.7%	24.9%	0.6%
(증가율)	3.5%	-11.1%	-7.8%	-16.7%	-7.6%	-45.5%	-53.2%	-66.7%	-5.4%	-33.3%
부동산업 및 임대업	528	64	1,051	71	396	24	302	36	832	19
(비중)	2.0%	2.3%	4.5%	2.9%	6.8%	3.6%	5.1%	5.2%	15.3%	2.8%
(증가율)	-66.9%	-31.9%	99.1%	10.9%	292.3%	60.0%	129.9%	125.0%	110.2%	-20.8%
금융 및 보험업	3,335	68	924	42	92	8	514	12	333	14
(비중)	12.6%	2.5%	4.0%	1.7%	1.6%	1.2%	8.7%	1.7%	6.1%	2.1%
(증가율)	1.9%	7.9%	-72.3%	-38.2%	-88.0%	-60.0%	46.1%	0.0%	261.8%	75.0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1. 제조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21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.1% 증가, 신규법인수는 9.8% 증가한 268개 기록
 -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의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.6%, 263.8% 투자 증가가 주요인
- 국가별로 중국(9.7억 달러, 비중 45.2%), 베트남(2.3억 달러), 브라질, 말레이시아와 미국(각각 1.1억 달러) 순으로, 아시아(16.3억 달러)와 유럽(2.5억 달러) 지역이 각각 76.1%, 11.7%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76.3%, '11년 71.0%, '12년 65.9%, '13년 1/4분기 68.7%, '13년 2/4분기 81.7%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유럽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11.6%, '11년 7.4%, '12년 10.7%, '13년 1/4분기 14.0%, '13년 2/4분기 4.4%
- 투자금액 비중은 39.4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9.6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8.0백만 달러로 업종 평균치(8.0백만 달러)에 가까움
-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8.6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.3억 달러), 전기장비 제조업(2.3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1.5억 달러), 의복·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.1억 달러)의 순

2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3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.9% 감소, 신규법인수는 33.3% 감소한 4개 기록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가 7.4억 달러로 전년동기 9.5억 달러 대비 22.0% 감소
- 국가별로는 호주(4.5억 달러), 미얀마(1.4억 달러), 네덜란드 및 멕시코(1.1억 달러), 캐나다(0.9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대양주(4.6억) 및 아시아(3.2억)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33.9%, 23.6% 차지
 - 광업 총투자액 대비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5.5%, '11년 16.7%, '12년 29.8%, '13년 1/4분기 23.9%, '13년 2/4분기 36.7%
 - 광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16.0%, '11년 12.4%, '12년 19.0%, '13년 1/4분기 15.8%, '13년 2/4분기 13.5%
- 신규법인수 비중(0.6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24.9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(338.4백만 달러)가 업종 평균 대비 큼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0.5억 달러) 투자비중이 77.8%, 금속 광업(2.7억 달러)이 20.1% 차지

3. 부동산업 및 임대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8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0.2% 증가, 신규법인수는 20.8% 감소한 19개 기록
 - 임대업(부동산 제외) 투자(3.6억 달러, 비중 43.2%)가 전년동기 대비 710.6% 증가
- 국가별로는 마셜군도(3.0억 달러), 저지(2.1억 달러), 호주(1.8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36.4%, 25.3%, 21.3%

4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1.8% 증가, 신규법인수는 75.0% 증가한 14개 기록
 - 국민연금의 케이만군도 금융업 투자(0.6억)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
- 지역별로는 중남미(1.7억 달러), 북미(0.7억 달러), 대양주(0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- 금분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2.1% 감소로 비중이 85.0%에서 70.8%로 대폭 감소, 반대로 중소기업 투자는 77.6% 증가하여 비중이 13.1%에서 24.9%로 확대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13.1%에 불과하나, 신규법인수 대비 투자금액은 대기업(0.4억 달러)이 중소기업(4.1백만 달러) 대비 약 10.6배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11		2012		2012. 3/4		2013. 2/4		2013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21,743	396	19,256	345	4,942	103	4,491	92	3,851	89
(비중)	82.1%	14.4%	83.1%	14.0%	85.0%	15.4%	76.2%	13.3%	70.8%	13.1%
(증가율)	6.2%	-3.2%	-11.4%	-12.9%	-9.7%	5.1%	-1.1%	2.2%	-22.1%	-13.6%
중소기업	3,757	1,265	3,403	1,098	762	300	1,307	333	1,353	330
(비중)	14.2%	45.8%	14.7%	44.4%	13.1%	45.0%	22.2%	48.0%	24.9%	48.7%
(증가율)	9.0%	-3.4%	-9.4%	-13.2%	-33.8%	-4.2%	37.8%	22.9%	77.6%	10.0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1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16.1억 달러, 비중 41.8%), 광업(12.6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2.7억 달러) 순
 -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5.0%, '11년 27.7%, '12년 29.2%, '13년 1/4분기 37.1%, '13년 2/4분기 43.7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18.7억 달러), 유럽(5.4억 달러), 대양주(5.2억 달러) 순

2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(5.6억 달러, 비중 41.5%), 제조업(4.9억 달러, 비중 36.4%) 순
 - 중소기업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비중 : '10년 9.5%, '11년 9.6%, '12년 14.5%, '13년 1/4분기 4.4%, '13년 2/4분기 13.2%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50.9%, '11년 54.4%, '12년 48.8%, '13년 1/4분기 30.2%, '13년 2/4분기 40.2%
- 지역별로는 대양주(4.9억 달러), 아시아(4.3억 달러) 순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3/4		2013. 2/4		2013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59	2,085	519	1,908	193	542	199	549	202	565
~200만달러 이하	1,001	356	946	311	348	75	367	83	311	49
~500만달러 이하	1,304	129	1,236	105	401	31	439	36	434	29
~1000만달러 이하	1,419	69	1,525	58	421	8	392	7	347	8
~5000만달러 이하	5,077	82	4,546	63	1,161	6	1,611	14	1,462	17
~1억달러 이하	3,614	15	3,044	11	870	2	526	2	1,092	7
1억달러 초과	13,516	23	11,348	15	2,418	3	2,357	3	1,590	2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4.9%에서 금분기 47.0%로 증가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41.1%에서 29.1%로 감소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0.8%에서 금분기 72.5%로 소폭 증가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3/4		2013. 2/4		2013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192	14	232	11	54	2	34	2	54	5
10% ~ 50% 미만	3,282	367	2,352	273	430	73	558	80	673	81
50%	609	97	587	95	135	26	166	19	83	14
50% 초과~100% 미만	3,669	237	2,761	200	1,079	51	929	62	683	59
100%	18,739	2,044	17,231	1,892	4,114	515	4,204	531	3,945	518